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 및 정체감 발달수준간의 관계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2학년 남녀 청소년들(67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정체감 발달수준, 정체감 발달수준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체감 발달수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어머니 갈등척도, 정체감 척도 및 문제행동 척도가 사용되었고, 성별과 학년 및 청소년-어머니 갈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과 정체감 발달수준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성별과 학년 및 정체감 발달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인들간의 관계를 검토한 후 세 변인간의 상관을 계산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어머니와 갈등이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고 더 낮은 정체감 발달수준을 지니고 있었으며, 낮은 정체감 발달수준의 소유자는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에서는 남고생을 제외하고 남중생, 여중생, 및 여고생들에서 연구자가 가정한 청소년-어머니 갈등 → 정체감 발달수준 → 문제행동의 관계가 확인됨으로써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수준은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변인(mediating variable)임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고생들은 정체감 발달수준이 낮고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서 연구자가 가정한 경로모형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어 : 청소년-어머니 갈등, 정체감 발달수준, 문제행동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연구한 결과들은 일관성있게 부모와의 갈등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유성경, 이소래, 2001; 이성식, 전신현, 2001; Funk,

1999; Cernkovich & Giordano, 1987). 특히 11년 동안 (1988-1998) 국내에서 이루어진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통합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권지은, 이소희, 1999), 청

소년의 개인적 변인과 가정변인 그리고 학교 및 사회변인들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이 연구에서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인은 개인적 변인에 해당하는 공격성($d=1.142$)과 반사회적 성향($d=.813$)이었고 그 다음이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감정이나 이해관계 혹은 가치 등에서의 갈등을 포함하는 가정불화 변인($d=.755$)이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가정변인을 부모와의 사별이나 별거, 이혼과 같은 구조적 특성과 부부갈등이나 가족구성원들간의 갈등 및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등의 기능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가정의 구조적 특성의 효과크기보다 기능적 특성의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정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이러한 결과들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을 뿐아니라(Dekovic, 1997; Barber, 1994) 김정수와 류진혜(2001) 및 Brody와 Forehand (1993)같은 연구자들은 비행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크게 지각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부모와의 갈등이 비행이나 문제행동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모와 갈등한다. 그러나 양자간의 갈등이 과도하거나 심각할 때는 부모 권위에 대한 반항과 학업실패, 물질사용, 가출, 자살충동 혹은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갈등의 원인과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적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Conger, Conger, & Scaramella, 1997;

Mason, Cauce, Gonzales, & Hiraga, 1996). 그러나 Fuligni(1998)를 포함하는 여러 연구자들(Collins & Russell, 1991; Steinberg, 1990)은 청년초기와 중기 동안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청소년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응집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함으로써 갈등은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에서 더 심각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 어떤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저지르고 어떤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가? 아마도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다른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개인의 정체감과 대처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0a)과 Berzonsky(1992)는 발달된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문제집중적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애착과 정체감 및 적응의 관계를 연구한 Lapsley, Rice 및 FitzGerald (1990)는 정체감 발달에서의 개인차는 청년기에서의 관계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면 발달된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의 갈등을 포함하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문제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정체감 혹은 자아정체감이란 개인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게 하고 현실의 의미와 개인이 지향할 미래의 방향이나 목표를 설정

하게 하므로(장휘숙, 2004; Erikson, 1968) 청년초기나 중기의 정체감 수준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수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어머니 갈등 → 정체감 발달수준 → 문제행동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성경(2002)은 발달된 자아정체감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에 대한 더 큰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의 역할에서 성차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더욱이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정체감 발달수준 및 문제행동의 관계는 성별은 물론 학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먼저 성별과 학년 및 청소년-어머니 갈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과 정체감 발달수준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3원변량분석과 성별과 학년 및 정체감 발달수준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3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정체감 발달수준 및 정체감 발달수준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먼저 검토하려고 한다. 이와함께 경로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체감 발달수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여기서 문제행동이란 Achenbach와 Edelbrock (1987)의 정의에 의하면, 물질남용과, 외재화 장애 및 내재화 장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청

소년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고 대다수가 인정하는 일탈된 행동성향으로 규정하였다. 청년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시기 동안 청소년-어머니 갈등이 증가하고 증가된 갈등은 청소년의 정체감 상태에 혼란을 초래하며 그것은 다시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청소년-어머니 갈등 → 정체감 발달수준 → 문제행동의 관계가 가정되었다.

방 법

연구대상

D시의 2개 남자 중학교와 2개 여자 중학교의 2학년 남녀 학생들과 2개 남자 고등학교 그리고 2개 여자 고등학교의 2학년 남녀 학생들이 표집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누락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분석대상자는 전체 673명이었다. 이중 남자 중학생은 167명, 여자 중학생 187명, 남자 고등학생 152명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은 167명이었다. 이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남자 중학생 13.28세($SD=.451$), 여자 중학생 13.15세($SD=.452$), 남자 고등학생 16.40세($SD=.492$)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 16.35세($SD=.479$)였다. 질문지는 2004년 5월 초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고 실시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척도

1. 청소년-어머니 갈등척도

장휘숙(2005)이 개작한 척도를 그대로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Printz, Foster, Kent 및 O'Leary(1979)의 문제항목조사지(Issues Checklist: IC)와 그것에 기초한 김수연과 정문자(1997) 및 정경아(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개작되었다. Printz 등의 조사지는 물론, 국내에서 사용된 척도들이 모두 오래전에 제작된 척도들이어서 최근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상황과 맞지 않은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휘숙(2005)은 최근 상황에 적합한 일부의 문항을 새로 첨가하였다. 그 예로서 “만화방에 출입하는 문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문제”, “PC방에 출입하는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21개 문항을 포함하는 이 척도에서의 질문은 지난 한달 동안 어머니와 나는 대화를 생각하면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은 ‘아주 조용함’에서 ‘아주 거침’까지 5점 척도상에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거칠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어머니와 갈등이 많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Cronbach α 로 계산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997이었다.

2.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 척도는 Brown, Clasen 및 Eicher (1986)가 제작하고 Maggs, Almeida 및 Galambos (1995)에 의해 사용된 문제행동들과 김선남 (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행동들에 기초하여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척도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반사회적 행동(8문항), 음주와 흡연하기 혹은 이성과 데이트하기와 같은 성인행동 모방(7문항), 주먹싸움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폭력행동(5문항) 그리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

나 속이는 행동과 같은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5문항)을 포함한다.

질문은 지난 2개월 동안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를 측정하며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에서 거의 매일(7)까지 7점 리커트 타입의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더 높은 점수는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Cronbach α 로 계산된 각 하위척도는 반사회적 행동 척도 .7860, 성인행동 모방 척도 .8172, 폭력행동 척도 .7641 그리고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 척도 .7695였다.

3. 정체감 척도

Rosenthal, Gureney 및 Moore(1981)가 제작한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Erikson Psychosocial Stage Inventory: EPSI)가 사용되었다. Rosenthal 등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8개 단계 중 초기 6개 단계(신뢰성, 자율성, 자주성, 근면성, 정체감, 친밀성)의 발달양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단계마다 위기의 성공적 해결문항 6개와 미해결 문항 6개씩을 배정하여 전체 72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정체감 척도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성인기에 해당하는 친밀성 문항을 제외한 60개 문항만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타입으로 구성된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높은 정체감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상철(1986)과 장휘숙(2000b)이 이미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으며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974였다.

결 과

1.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의 관계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성별이나 학년과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청소년-어머니 갈등 점수의 50%를 기준으로 갈등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성별(남, 녀) x 학년(중, 고) x 갈등(고, 저)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은 성별과 학년 및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따른 네가지 문제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고 표 2는 각 문제행동에 대해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하면, 갈등의 주효과가 네가지 문제행동 모두(반사회적 행동 $F(1,665) = 4.041, p < .05$; 성인행동모방 $F(1,665) = 6.750, p < .01$; 폭력행동 $F(1,665) = 3.671, p < .05$;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 $F(1,665) = 27.216, p < .001$)에서 일관성있게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와 갈등이 많은 청소년들이 갈등이 적은 청소년들

표 1. 성별, 학년, 갈등에 따른 네가지 문제행동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성별	학년	갈등	N	문제행동			
				반사회적 행동 평균(SD)	성인행동 모방 평균(SD)	폭력행동 평균(SD)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 평균(SD)
남	중	고	94	1.084(.161)	1.308(.480)	1.169(.343)	1.862(.779)
		저	74	1.043(.076)	1.229(.443)	1.143(.305)	1.542(.825)
		전체	168	1.068(.132)	1.264(.464)	1.151(.326)	1.727(.813)
	고	고	76	1.177(.515)	1.985(1.164)	1.146(.544)	2.060(.989)
		저	76	1.098(.507)	1.731(1.107)	1.075(.276)	1.634(.626)
		전체	152	1.138(.511)	1.868(1.139)	1.101(.431)	1.857(.852)
	전체	고	170	1.128(.366)	1.609(.920)	1.153(.443)	1.956(.882)
		저	150	1.064(.365)	1.482(.882)	1.101(.292)	1.592(.730)
		전체	320	1.091(.366)	1.556(.903)	1.137(.380)	1.789(.833)
여	중	고	90	1.090(.161)	1.268(.438)	1.092(.232)	1.995(.841)
		저	96	1.061(.140)	1.162(.310)	1.055(.175)	1.732(.780)
		전체	186	1.071(.151)	1.219(.379)	1.070(.205)	1.868(.818)
	고	고	67	1.037(.094)	1.263(.731)	1.068(.489)	1.762(.662)
		저	100	1.017(.034)	1.145(.251)	1.000(.000)	1.517(.604)
		전체	167	1.027(.066)	1.191(.503)	1.023(.310)	1.614(.638)
	전체	고	157	1.061(.139)	1.263(.579)	1.082(.363)	1.891(.776)
		저	196	1.039(.104)	1.154(.281)	1.033(.125)	1.627(.703)
		전체	353	1.056(.121)	1.200(.442)	1.058(.260)	1.743(.747)
전체	중	고	184	1.083(.161)	1.287(.459)	1.137(.296)	1.921(.810)
		저	170	1.057(.117)	1.190(.374)	1.098(.243)	1.653(.803)
		전체	354	1.075(.142)	1.245(.422)	1.118(.272)	1.791(.817)
	고	고	143	1.104(.386)	1.655(1.046)	1.100(.518)	1.929(.862)
		저	176	1.046(.335)	1.403(.804)	1.031(.184)	1.572(.615)
		전체	319	1.070(.360)	1.519(.927)	1.060(.374)	1.735(.756)
	전체	고	327	1.098(.282)	1.445(.793)	1.120(.408)	1.927(.832)
		저	346	1.056(.252)	1.302(.638)	1.060(.217)	1.619(.714)
		전체	673	1.077(.268)	1.375(.721)	1.095(.325)	1.760(.789)

표 2. 성별, 학년,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따른 네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3원 변량분석 결과

문제행동	성별	학년	갈등	성별x학년	성별x갈등	학년x갈등	성별x학년x갈등
반사회적 행동	5.094*	0.204	4.041*	9.204**	0.827	0.113	0.322
성인행동 모방	45.805***	32.328***	6.750**	33.899***	0.276	1.019	0.545
폭력행동	8.971**	3.132	3.671*	0.022	0.005	0.478	0.023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	0.139	0.391	27.216***	9.629**	0.968	0.182	0.238

* $p < .05$, ** $p < .01$, *** $p < .001$ 이하 동일함.

보다 반사회적 행동, 성인행동모방, 폭력행동 및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갈등과 성별 혹은 학년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네가지 문제행동 중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F(1,665) = 9.204$, $p < .01$)도 유의하였고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들은 여자 고등학생들($F(1,317) = 7.761$, $p < .01$)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남자 중학생($F(1,333) = 13.309$, $p < .001$)과 여자 중학생($F(1,351) = 18.755$, $p < .001$)은 여자 고등학

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남녀 중학생들간이나 남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 그리고 여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남자 고등학생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이 남녀 중학생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성별($F(1,665) = 5.094$, $p < .05$)의 주효과도 유의하여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중 성인행동 모방에서도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F(1,665) = 33.899$, $p < .001$)가 유의하여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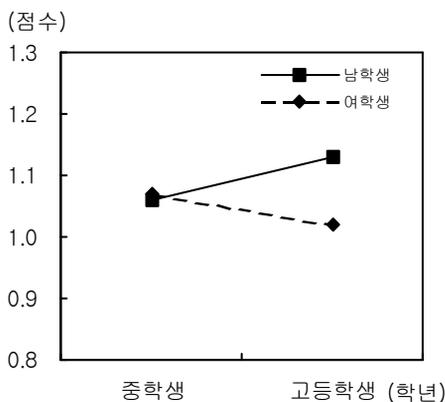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반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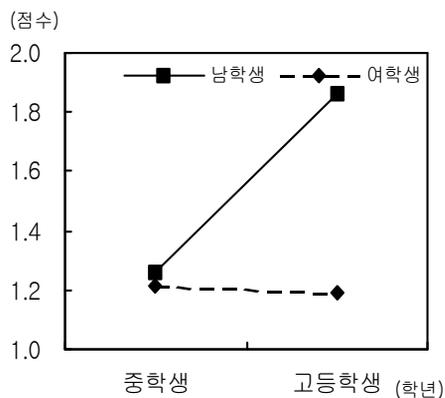


그림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성인행동 모방에서의 차이

여자 고등학생들($F(1,317) = 47.123, p < .001$)과 남자 중학생($F(1,318) = 38.636, p < .001$) 및 여자 중학생($F(1,336) = 53.226, p < .001$)보다 성인행동 모방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 및 남녀 중학생들과 여자 고등학생들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고등학생들이 성인모방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성별($F(1,665) = 45.805, p < .001$)과 학년($F(1,665) = 32.328, p < .001$)의 주효과도 유의하여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성인행동 모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문제행동 중 폭력행동에서는 성별($F(1,665) = 8.971, p < .001$)과 갈등($F(1,665) = 3.671, p < .05$)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상호작용 효과는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그리고 어머니와 갈등이 많은 학생들이 갈등이 적은 학생들보다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하위요인 중 부모에 대한 반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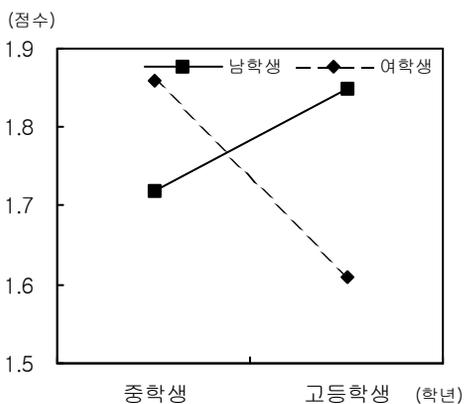


그림 3. 성별과 학년에 따른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에서의 차이

행동의 경우에는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F(1,665) = 9.629, p < .01$)가 유의하여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자 중학생들이 여자 고등학생들($F(1,352) = 9.560, p < .01$)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남자 고등학생들은 여자 고등학생들($F(1,317) = 7.735, p < .01$)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여자 중학생은 남자 중학생($F(1,352) = 4.626, p < .05$)보다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들은 남자 중학생($F(1,318) = 4.626, p < .05$)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중학생 및 남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여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문제행동에 관한 3원 변량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어머니와 갈등이 많은 청소년들은 일관성있게 네가지 문제행동 즉 반사회적 행동, 성인행동 모방, 폭력행동 및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을 포함하는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임이 분명하였다. 더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성별과 학년 및 갈등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와의 갈등은 성별이나 학년과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문제행동 중 반사회적 행동과 성인행동 모방 및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에서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단순주효과 분석결과 남자 고등학생과 남자 중학생 그리고 여자 중학생들이 여자

고등학생들보다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남자 고등학생들이 여자 고등학생과 여자 중학생들보다 성인행동 모방을 더 많이 하였으며,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중학생이 남자 중학생이나 여자 고등학생들보다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행동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남자 고등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많은 집단이었고, 여자 고등학생들은 가장 문제가 적은 집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2.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정체감 발달수준의 관계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정체감 발달수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제행동에서와 동일하게 청소년-어머니 갈등점수의 50%를 기준으로 갈등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제로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성별이나 학년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별(남, 녀) x 학년(중, 고) x 청소년-어머니 갈등(고, 저)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

표 3. 성별, 학년, 갈등에 따른 다섯가지 정체감 발달수준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성별	학년	갈등	N	정체감 발달수준				
				신뢰성 평균(SD)	자율성 평균(SD)	자주성 평균(SD)	근면성 평균(SD)	정체성 평균(SD)
남	중	고	94	3.212(.576)	3.244(.481)	2.973(.542)	3.149(.430)	3.197(.490)
		저	74	3.370(.481)	3.508(.472)	3.201(.408)	3.304(.404)	3.383(.426)
		전체	168	3.281(.541)	3.351(.494)	3.072(.499)	3.212(.424)	3.285(.471)
	고	고	76	3.189(.509)	3.250(.590)	3.024(.587)	3.074(.417)	3.240(.576)
		저	76	3.230(.553)	3.449(.547)	3.126(.514)	3.161(.398)	3.314(.542)
		전체	152	3.204(.530)	3.355(.575)	3.070(.552)	3.128(.408)	3.287(.559)
	전체	고	170	3.201(.546)	3.246(.531)	3.007(.562)	3.113(.424)	3.217(.529)
		저	150	3.308(.522)	3.470(.510)	3.165(.465)	3.231(.405)	3.355(.488)
		전체	320	3.244(.536)	3.358(.533)	3.071(.524)	3.177(.419)	3.286(.514)
여	중	고	90	3.284(.560)	3.186(.550)	3.080(.526)	3.125(.439)	3.222(.464)
		저	96	3.445(.505)	3.459(.467)	3.206(.424)	3.254(.445)	3.284(.463)
		전체	186	3.364(.537)	3.329(.527)	3.140(.478)	3.196(.445)	3.251(.463)
	고	고	67	3.172(.519)	3.216(.447)	3.181(.430)	3.058(.341)	3.273(.417)
		저	100	3.388(.502)	3.416(.474)	3.277(.571)	3.224(.461)	3.451(.543)
		전체	167	3.306(.517)	3.337(.472)	3.234(.520)	3.152(.424)	3.388(.503)
	전체	고	157	3.243(.544)	3.195(.508)	3.128(.488)	3.090(.401)	3.246(.444)
		저	196	3.417(.503)	3.438(.470)	3.245(.504)	3.234(.452)	3.370(.512)
		전체	353	3.332(.528)	3.323(.501)	3.184(.500)	3.170(.435)	3.311(.486)
전체	중	고	184	3.246(.568)	3.213(.516)	3.021(.536)	3.137(.433)	3.216(.476)
		저	170	3.419(.495)	3.474(.469)	3.209(.416)	3.274(.427)	3.323(.449)
		전체	354	3.324(.540)	3.334(.511)	3.118(.489)	3.208(.435)	3.263(.466)
	고	고	143	3.185(.512)	3.237(.527)	3.105(.523)	3.061(.382)	3.252(.506)
		저	176	3.319(.528)	3.423(.505)	3.217(.551)	3.190(.435)	3.398(.546)
		전체	319	3.252(.525)	3.345(.523)	3.166(.541)	3.146(.417)	3.330(.532)
	전체	고	327	3.213(.544)	3.229(.520)	3.066(.530)	3.106(.413)	3.237(.489)
		저	346	3.360(.514)	3.454(.488)	3.207(.489)	3.233(.432)	3.364(.501)
		전체	673	3.290(.534)	3.345(.516)	3.131(.514)	3.178(.427)	3.294(.499)

표 4. 성별, 학년,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따른 정체감 발달수준에 대한 3원 변량분석 결과

정체감 발달수준	성별	학년	갈등	성별x학년	성별x갈등	학년x갈등	성별x학년x갈등
신뢰성	2.973	4.396*	12.569***	0.000	0.813	0.195	0.935
자율성	1.289	0.135	34.686***	0.037	0.019	0.975	0.003
자주성	6.864**	0.817	11.505***	1.681	0.410	0.970	0.501
근면성	0.086	5.348*	16.620***	0.669	0.191	0.029	0.688
정체성	.0358	1.692	10.778***	2.388	0.017	0.005	2.426

별과 학년 및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따른 다섯가지 정체감 발달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고 표 4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 의하면, 다섯가지 정체감 발달점수(신뢰성($F(1,665) = 12.569$, $p < .001$), 자율성($F(1,665) = 34.686$, $p < .001$), 자주성($F(1,665) = 11.505$, $p < .001$), 근면성($F(1,665) = 16.620$, $p < .001$), 정체성($F(1,665) = 10.778$, $p < .001$)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와 갈등이 적은 청소년들이 신뢰성, 자율성, 자주성, 근면성, 정체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갈등이 많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정체감 발달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주성에서는 성별의 주효과($F(1,665) = 6.864$, $p < .01$)가 유의하였고, 신뢰성($F(1,665) = 4.396$, $p < .05$)과 근면성($F(1,665) = 5.348$, $p < .05$)에서는 학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자주성을 지니고 있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근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다른 요인들에서는 성이나 학년에서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체감 발달의 어떤 요인에서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남자 청소년이든 여자 청소년이든 또한 중학생

이든 고등학생이든 어머니와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체감 발달수준이 낮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3. 정체감 발달수준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정체감 발달수준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점수의 50%를 기준으로 정체감 발달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수준 역시 성별이나 학년과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별(남, 녀) x 학년(중, 고) x 정체감 발달수준(고, 저)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성별과 학년 및 정체감 발달수준에 따른 네가지 문제행동 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고 표 6은 각 문제행동 점수에 대해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6에 의하면, 네가지 문제행동 모두(반사회적 행동($F(1,665) = 10.227$, $p < .001$), 성인행동 모방($F(1,665) = 3.885$, $p < .05$), 폭력행동($F(1,665) = 3.486$, $p < .05$), 부모에 대한 반항($F(1,665) = 18.696$, $p < .001$))에서 정체감 발달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정체감 발달점수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네가지 문제행동 모두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얻어 정체감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더 적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표 5. 성별, 학년, 정체감 발달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학년	정체감 발달수준	N	문제행동				
				반사회적 행동	성인모방 행동	폭력행동	부모에 대한 반항 행동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남	중학생	고	83	1.033(.073)	1.237(.431)	1.129(.294)	1.618(.731)	
		저	85	1.084(.167)	1.289(.496)	1.173(.356)	1.819(.879)	
		전체	168	1.058(.132)	1.264(.464)	1.151(.326)	1.717(.813)	
	고등학생	고	74	1.057(.175)	1.738(1.167)	1.064(.222)	1.681(.684)	
		저	78	1.195(.688)	1.971(1.108)	1.135(.562)	2.005(.964)	
		전체	152	1.128(.511)	1.858(1.139)	1.101(.431)	1.847(.852)	
	전체	고	157	1.044(.131)	1.480(.893)	1.109(.264)	1.648(.708)	
		저	163	1.138(.493)	1.611(.911)	1.155(.465)	1.909(.923)	
		전체	320	1.091(.366)	1.546(.903)	1.127(.380)	1.779(.833)	
	여	중학생	고	95	1.048(.114)	1.183(.339)	1.059(.210)	1.698(.600)
			저	91	1.094(.179)	1.234(.416)	1.080(.200)	2.014(.967)
			전체	186	1.071(.151)	1.209(.379)	1.070(.205)	1.858(.818)
고등학생		고	82	1.006(.027)	1.156(.260)	1.000(.000)	1.527(.551)	
		저	85	1.027(.087)	1.225(.658)	1.047(.434)	1.696(.705)	
		전체	167	1.017(.066)	1.191(.503)	1.024(.310)	1.614(.638)	
전체		고	177	1.028(.088)	1.170(.305)	1.031(.156)	1.618(.581)	
		저	176	1.062(.146)	1.230(.545)	1.064(.334)	1.863(.865)	
		전체	353	1.046(.121)	1.200(.442)	1.048(.260)	1.743(.747)	
전체		중학생	고	178	1.041(.097)	1.209(.385)	1.092(.254)	1.660(.663)
			저	176	1.089(.173)	1.261(.456)	1.124(.289)	1.923(.930)
			전체	354	1.065(.142)	1.235(.422)	1.108(.272)	1.791(.817)
	고등학생	고	156	1.030(.124)	1.432(.873)	1.030(.156)	1.601(.620)	
		저	163	1.108(.486)	1.582(.974)	1.089(.499)	1.844(.851)	
		전체	319	1.070(.360)	1.509(.927)	1.060(.374)	1.725(.756)	
	전체	고	334	1.036(.111)	1.313(.668)	1.063(.216)	1.632(.643)	
		저	339	1.098(.359)	1.415(.766)	1.107(.404)	1.885(.892)	
		전체	673	1.067(.268)	1.365(.721)	1.085(.325)	1.760(.789)	

표 6. 성별, 학년, 정체감 발달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한 3원 변량분석 결과

문제행동	성별	학년	정체감	성별x학년	성별x정체감	학년x정체감	성별x학년x정체감
반사회적 행동	5.485*	0.095	10.227***	9.164**	2.052	0.526	2.015
성인행동 모방	48.166***	30.588***	3.885*	34.770***	0.466	0.885	0.809
폭력행동	9.968**	3.108	3.486*	0.006	0.154	0.253	0.008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	0.502	1.053	18.696***	9.861**	0.001	0.050	1.796

또한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네가지 문제행동 중 반사회적 행동과 성인행동 모방 및 폭력행동에서는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성인행동 모방에서는 학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폭력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문제행동에서는 성별과 학년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으로써 중·고등학교 남녀 청

소년들의 문제행동 패턴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었다.

4. 청소년-어머니 갈등, 정체감 발달수준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정체감 발달수준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세 변인간의 전체점수를 사용하여 상호상관을 계산한 결과,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간에는 $r = .147(p < .05)$ 로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정체감 발달수준 간에는 $r = -.237(p < .01)$, 그리고 정체감 발달수준과 문제행동간에는 $r = -.205(p < .01)$ 로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수준은 낮고 문제행동은 더 많이 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청소년-어머니 갈등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양자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수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 변인의 전체 점수를 가지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네가지 문제행동에서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므로 중학교 남녀 학생들과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그림 4와 5 및 그림 7과 같이 남녀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들에서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 정체감 발달수준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고 정체감 발달수준에서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 역시 유의함으로써 정체감 발달수준의 중재효과가 확인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에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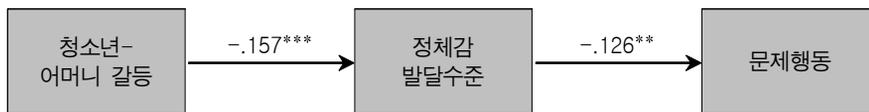


그림 4. 남자 중학생의 청소년-어머니 갈등, 정체감 발달수준,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그림 5. 여자 중학생의 청소년-어머니 갈등, 정체감 발달수준,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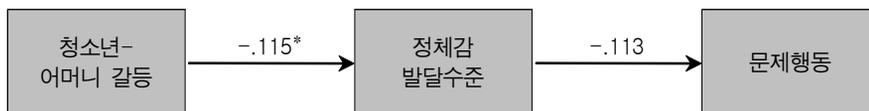


그림 6. 남자 고등학생의 청소년-어머니 갈등, 정체감 발달수준,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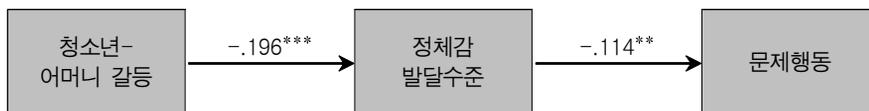


그림 7. 여자 고등학생의 청소년-어머니 갈등, 정체감 발달수준,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등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수준은 낮아지고 낮아진 정체감은 다시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같이 정체감 발달수준에서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으로써 정체감 발달수준의 중재효과가 확인될 수 없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남녀 청소년들(67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정체감 발달수준, 및 정체감 발달수준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수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어머니 갈등척도, 문제행동척도 및 정체감 척도가 사용되었고 두 변인들간의 관계가 3원 변량분석을 통하여 먼저 검토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별과 학년 및 청소년-어머니 갈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과 정체감 발달수준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3원 변량분석과 성별과 학년 및 정체감 발달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3원 변량분석이 실시되었고, 세 변인간의 관계는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우선 변량분석 결과 어머니와 갈등이 많은 청소년들이 적은 청소년들보다 네가지 문제행동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다섯가지 정체감 발달수준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얻어, 어머니와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적게 경험하는 청소년들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고 더

낮은 정체감 발달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체감 발달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높은 청소년들보다 모든 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들은 반사회적 행동과 성인행동 모방 및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었으며 여자 중학생은 남자 고등학생과 동일한 정도로 부모에 대해 반항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 고등학생들은 네 집단 중 반사회적 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집단이었고 성인행동 모방에서는 남녀 중학생들과 차이가 없었으며 남자 중학생들과 같이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도 가장 적게 하는 집단이었다. 폭력행동에서는 성차만 유의하여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학년 및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물론 성별과 학년 및 정체감 발달수준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와의 갈등과 정체감 발달수준은 성별이나 학년과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분명하였다. 이와함께 갈등, 정체감,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상관을 계산한 결과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정체감 발달수준 및 정체감 발달수준과 문제행동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어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수준은 낮고 문제행동은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었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세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들을 제외하고 남녀 중학생들과 여자 고등학생들

에서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수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다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어머니 갈등 → 정체감 발달수준 → 문제행동의 관계가 확인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수준은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변인임이 확인될 수 있었다.

우선 청소년-어머니 갈등이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Conger, Conger, & Scaramella, 1997; Mason 등, 1996)과 일치하는 결과인 동시에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수준이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물론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 역시 장휘숙(2000a)이나 Berzonsky(1992) 혹은 Lapsley, Rice & FitzGerald(199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에서 가정된 대로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수준은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청년기 발달에서 정체감 발달의 중요성이 확인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Berzonsky(1992)의 주장대로 높은 수준의 정체감 발달을 이룬 청소년들은 문제집중적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어머니와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문제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체감 발달수준의 중재효과가 남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입증되지 않음으로써 발달된 자아 정체감은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유성경(2002)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남자 고등학생들의 저조한 정체감 발달이 유의한 경로모형

의 산출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체감 발달의 전체점수에서 성차나 학년차 혹은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으로써 연령에 따른 정체감 발달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아니라 정체감 하위요인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자주성을 지니고 있었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신뢰성과 근면성을 지니고 있어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정체감 상태는 문제행동을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남자 고등학생들의 저조한 정체감 발달은 그들의 개인적 특성은 물론 대학입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상황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나,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므로 다른 연구를 통하여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들은 남자 중학생은 물론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반사회적 행동과 성인행동 모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부모에 대한 반항행동에서는 여자 중학생과 유사한 정도의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가장 많은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집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가 18-19세 연령집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이 16-17세 집단, 14-15세 집단 그리고 14세미만의 집단 순으로 일어난다는 「2002 청소년 백서」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남자 고등학생들에서 정체감 발달수준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Kiesner와 Kerr(2004)의 주장대로, 부모와의 갈등이라는 하나의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또래나

학교를 포함하는 맥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연령에 따라 각 요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지는데 기인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남녀 중학생들과 여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도 유의한 경로모형을 산출하기는 하였지만 여기서 나타난 낮은 계수값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청년중기인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면 남자 청소년들은 그들의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행동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며 문제있는 동년배들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문제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이 연구에서 가정한 청소년-어머니 갈등 → 정체감 발달수준 → 문제행동의 모형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추론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정체감 척도 때문에 남자 고등학생들의 정체감 발달수준이 민감하게 측정되지 못한 결과로 유의한 경로모형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Rosenthal, Gureney 및 Moore(1981)가 제작한 심리사회적 단계검사 중에서 Erikson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처음 다섯 개 단계와 관련된 문항만이 사용되었으나 Dignan(1965)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기초로 제작된 서봉연(1975) 척도를 사용하거나(이 척도에서는 자아정체감을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성,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Bennion과 Adams(1986)가 제작한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 척도를 사용하였다면 개인의 정체감을 보다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앞으

로의 연구에서는 Rothenthal 등의 척도와 함께 상기한 두가지 척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를 비교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정체감 척도는 물론 청소년-어머니 갈등 척도와 문제행동 척도 모두 자기보고의 지필평정에 의존함으로써 공유된 방법변량의 문제를 포함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미래 연구에서는 공유된 방법변량에 기인한 잠재적인 편향된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더 광범위한 평정방법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비록 남자 고등학생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었지만,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수준이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정체감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Erikson(1968)과 그 후속연구자(Archer & Waterman, 1983; Marcia, 1980)들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청년기 동안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지은, 이소은(1999).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4(1), 79-101.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 관련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연, 정문자(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5(3), 181-192.
- 김정수, 류진혜(2001). 부-자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8(2), 1-23.

- 문화관광부(2002). 2002 청소년 백서.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성경(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01-217.
- 유성경, 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성식, 전신현(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 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5), 173-198.
- 이주옥(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2000a).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II): 대처방식의 중재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41-157.
- 장휘숙(2000b).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I).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 장휘숙(2004). *청년심리학 제 3판*. 서울: 박영사.
- 장휘숙(2005).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변인들-성별, 연령, 신체성숙수준, 주관적 연령,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97-113.
- 정경아(1993). 사춘기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철(1986). 청년기에 있어서 자아 아이덴티티의 발달과정-EPSI를 통한 발달과정의 형성 기간에 대한 규명.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 Edelbrock, C. (1987). *The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rcher, S., & Waterman, A. (1983). Identity in early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203-214.
- Barber, B. K. (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75-386.
- Bennion, L. D., & Adams, G. R. (1986). A revision of Extended Versio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 Berzonsky, M. D. (1992). Identity style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60(4), 771-788.
- Brody, G. H., & Forehand, R. (1993). Prospective associations among family form,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s' alcohol and drug use. *Behavioral Research Therapy*, 31, 587-593.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 Cernkovich, S. A., & Giordano, P. C.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21.
- Collins, W. A., & Russell, G. (1991).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1, 99-136.
- Conger, K. J., Conger, R. D., & Scaramella, L. V. (1997). Parents, siblings,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13-138.
- Dekovic, M. (1997).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roblem behavio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6), 667-685.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5, 476-48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uligni, A. J. (1998). Authority, autonomy,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cohesion: A study of adolescents from Mexican, Chinese, Filipino and European background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82-792.
- Funk, S. (1999). Risk assessment for juveniles on probation-A focus on gende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1), 44-68.
- Kiesner, J., & Kerr M. (2004). Families, peers, and contexts as multiple determinants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27, 493-495.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561-565.
- Maggs, J. L., Almeida, D. M., & Galambos, N. L. (1995). Risky business: The paradoxical meaning of problem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344-362.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Wiley.
- Mason, C. A., Cauce, A. M., Gonzales, N., & Hiraga, Y. (1996). Neither too sweet nor too sour: Problem peers, maternal control, and problem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7, 2115-2130.
- Printz, R. J., Foster, S., Kent, R. N., & O'Leary, K. D. (1979). Multivariat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91-700.
- Rosenthal, D. A., Gurney, R. M., & Moore, S. M. (1981). From trust to intimacy: A new inventory for examining Erikson's state of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6, 525-537.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차 원고 접수 : 2005. 6. 27

수정 원고 접수 : 2005. 7. 26

최종게재결정 : 2005. 8. 20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dolescent-Mother Conflict, Problem Behavior and the Level of Ego-Identity Development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dolescent-mother conflict, problem behavior, and the level of ego-identity development wi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three scales-adolescent-mother conflict scale, ego-identity scale and problem behavior scale-were used. Three way ANOVA revealed that the adolescents having much conflicts with mother had more problem behaviors and lower level of ego-identity development than their peers. Also the adolescents with the low level of ego-identity development had more problem behaviors than their counterparts. In addition, path analysis revealed that the adolescent-mother conflicts affected on the levels of ego-identity and in turn the ego-identity levels affected on the problems behavior as the postulated causal relation except high school male students. Interestingly the high school male students had the low level of ego-identity and engaged in the many problem behaviors.

Keywords: adolescent-mother conflict, ego-identity, problem behavior